

# ICT기술로 30년후 미래 체험... “해저·우주도시 신기하네”

## 르포

### SKT ICT체험관 ‘티움’ 가보니

우주·해저 진출한 인류모습 연출 하이퍼루프, 서울~부산 15분 주파 증강현실 통한 원격수술 체험도

30년 뒤 미래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30년 뒤인 2052년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 바꾼 세상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16일 기자가 체험을 위해 방문한 서울 을지로의 SK텔레콤 본사에 자리잡은 ICT 체험관인 티움은 ICT 기술이 30년 후 사람들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공간이다.

티움은 SKT가 미래 ICT비전 제시를 위해 을지로 본사에 설립한 총 1370㎡(414평) 규모의 ICT체험관이다.

티움은 테크놀로지,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의 ‘티(T)’와 뮤지엄(museum), 싸움띠움 등의 ‘움(um)’을 결합한 이름으로, 뉴 ICT 기술로 미래의 싸움 띠우겠다는 SKT의 철학을 담고 있다.

티움은 지금까지 180여개국에서 16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시속 1300km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다. /채윤정 기자



하이랜드 플랫폼의 모습.

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전체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은 약 40% 가량 될 정도로 글로벌 관람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외 귀빈과 글로벌 유력기업 관계자들도 서울을 방문할 때면 티움을 필수 방문 코스로 손꼽을 정도다.

티움은 30년 후 미래에 우주와 해저로 진출한 인류가 인공지능(AI)과 초고속 네트워크로 하나된 미래 세상의 체험 스토리를 첨단 ICT 장비들로 실감나게 연출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장한 후 연간 2만명이 찾는 인기 체험관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가 오프라인 투어를 진행하지 못하다 최근 운영을 재개했다.

#### ◆1300km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탑승하자 순식간에 우주관제센터 도착

입구에 들어가면 로봇팔에 달린 대형 디스플레이인 ‘로봇게이트’가 해저와 우주에 건설된 미래도시인 ‘하이랜드’

를 소개했고 미래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게이트를 통과했다.

스페이스십과 도킹을 위해 이동할 때는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를 탑승해야 했다.

하이퍼루프는 시속 1300km 속도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안쪽에는 그래프 등이 표기돼 있는 디스플레이 2대가 있었고 전면 스크린이 놓여져 있었다. 하이퍼루프는 초고속 통신, AI, 초정밀 GPS(위치정보시스템), 자율주행 기술이 집약적으로 구현된 운송수단이다.

실제로 열차가 이 속도로 달리지는 않지만 좌석이 흔들리며 바깥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놀이공원에서 3D나 4D 기구를 탑승했을 때와 같은 느낌도 들었다. 드디어 도착한 우주관제센터는 초고속네트워크로 연결된 우주망원경과 홀로그램 통신 기반 초연결통신을 연출하고 있었다. 안면인식 기능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들어선 우주관제센터



우주관제센터 모습.

/SKT

에서는 우주 환경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었다. 탐사선이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이 우주에서 초고속네트워크로 전송되고 있었다.

또 지구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니 갑작스런 경보음이 울렸는데, 멕시코 콜리마 지역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HMD(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멕시코 콜리마 화산 분화구로 올라가 보니, 연기와 화산에 가득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분화구에 가까워지자 손잡이가 뜨거워졌는데, 이는 열이 잘 전달되는 소재를 사용해 더욱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구로 돌아오는 도중 토네이도를 만나 조난자가 발생했다. AR(증강현실)로 구현된 의무실에서는 기자가 직접 전송장치를 잡고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진행해볼 수 있었다. 햅틱 전송장치로 환자의 뼈를 갈아주니 감각통신기술이 적용돼 손에서 진동이 느껴지며 원격 수술 체험을 할 수 있었다.

#### ◆지구로 향하는 운석 충돌을 막아라...

#### 운석 궤도 바꾸는 데 성공

이후 수심 800m의 하이랜드 해저도시로 이동했다. 이 곳에서는 HMD를 쓰고 지구로 향하는 운석 충돌을 막는 체험을 진행했다. 결국 로봇을 접속해 지구 가까이로 다가온 운석의 궤도를 바꾸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연 없이 빠르게 작동되는 미래 로봇과 메타버스를 표현한 것이다. 텔레포트를 마련돼 있었는데, 운석 낙하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SKT 관계자는 “티움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관리, 태양열 발전시설,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된 30년 후 미래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탑승기구에 앉아 몰입감 있게 미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며 “SKT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5G를 바탕으로 한 AI, 메타버스 플랫폼, XR 기기 뿐 아니라 ESG 경영과도 통째로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재건축·리모델링 채비 활발... 3년새 실거래가 2배 이상 올라

## 부동산 현장 르포

### 1기 신도시를 가다 <군포 산본>

주요 단지 재건축 연한 30년 채워 용적률 등 상황에 맞춰 재정비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경기 군포시 산본 1기 신도시에서는 각 단지의 상황에 맞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찾은 군포시 산본 한라주공 4단지1차 아파트.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단지는 총 10개동, 1248가구 규모다. 지난 1992년 입주를 시작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운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이 상당했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라주공단지는 1기 신도시 최초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서 “단지 용적률이 115%로 낮고 대지비율은 17평 정도로 높아 재건축 진행 시 사업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1기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 최대인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



수리산역 3번출구 앞에 위치한 가야주공5단지1차 아파트 모습.



군포시 산본 한라주공4단지1차 아파트 모습.

이라면서 “재건축 진행 시 용적률이 낮을수록 새로운 아파트를 더 공급할 수 있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부담이 줄어든다. 대지비율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넓은 평형을 선택하거나 작은 평형으로 두 채를 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은 지상층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지비율은 토지면적에 대지권 비율을 곱한 값이다. 통상 용적률이 150% 이하이고 대지비율이 15평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한라주공4단지1차는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7억6300만원에 거래됐다. 3년 전 같은 면적 거래가격(3억2000만

원)보다 4억4300만원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41㎡가 2억1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 상승했다.

수리산역을 중심으로 한라주공4단지1차반대편에 위치한 가야주공5단지1차 아파트도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 16개동, 1601세대인 단지는 지난 1993년 지어져 재건축 연한을 앞두고 있다.

단지 주민 박모(62)씨는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면서 “한라주공 처럼 가야주공1차도 용적률이 129%로 낮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가야주공5단지1차는 지난 4월 전용면적 41㎡가 실거래가 5억68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억8200만원에서 3억8600만원 났 셈이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51㎡ 실거래가가 6억1500만원으로 3년 전 거래가격(2억2000만원)보다 3억9500만원 상승했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1기신도시 단지들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 1994년 입주를 시작한 우륵주공 7단지, 산본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단지는 총 15개동, 1312세대다. 재건축 연한을 앞둔 단지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의 용적률이 226%로 높고 대지비율이 10평으로 낮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우륵주공7단지가 산본 최초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서 “일대 다른 단지들도 리모델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개나리13단지과 울곡3단지, 무궁화주공1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우륵주공7단지는 지난 4월 전용면적 58㎡가 5억원에 거래됐다. 3년 전 같은 면적 거래가격(2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올랐다. 개나리13단지는 같은 기간 전용면적 58㎡가 2억5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 상승했다. 울곡3단지는 지난 5월 전용면적 51㎡가 5억3500만원으로 3년 전 거래가격(2억4000만원)보다 2억9500만원 상승했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같은 기간 전용면적 74㎡가 3억825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2억7750만원 상승했다.

/김대환 기자 kdh@



우륵주공7단지가 산본 최초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김대환 기자